

2012년 0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청소년을 위한 국악연주활동 연구

-광주시립예술단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나 영

석 사 학 위 논 문

청소년을 위한 국악연주활동 연구

-광주시립예술단을 대상으로-

A Stud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Activities for
Adolescents: Focusing on Gwangju Municipal Art Company

2012년 0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나 영

청소년을 위한 국악연주활동 연구

-광주시립예술단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이 한 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나 영

김나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혜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지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한나 인

201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4
3. 선행연구 고찰	5
II. 이론적 배경	7
1. 청소년기의 정의 및 특징	7
2. 청소년기 음악교육의 역할	11
3. 청소년기 국악교육의 역할 및 중요성	13
III. 광주시립예술단 국악연주활동(2010-2011)	15
1. 광주시립예술단의 국악 관련 단체 개관	15
2. 광주시립예술단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 분석	21
3. 찾아가는 예술단 청소년 설문조사 및 분석	28
IV. 결과 및 제언	39
참고문헌	41
부록	43

표 목 차

<표 1> 국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조사	2
<표 2> 시립국극단의 단장(예술감독) 변천 및 재임기간	16
<표 3> 시립국악관현악단의 단장(지휘자) 변천 및 재임기간	19
<표 4> 광주시립국극단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	22
<표 5>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	23

그림 목 차

[그림 1] 찾아가는 예술단 총 방문횟수 비교	26
[그림 2] 국악공연 이전 관람 유무	31
[그림 3] 공연관람 계기	32
[그림 4] 공연관람 장소	32
[그림 5] 공연관람 후 만족도	33
[그림 6] 공연의 교육적 효과- 유익성	34
[그림 7] 음악회의 흥미유발 정도	35
[그림 8] 공연구성에 대한 인지적 효과	35
[그림 9] 전통문화에 관한 인식	36
[그림 10] 청소년들의 음악 감상활동에 미치는 효과	37
[그림 11] 예술단공연과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상관관계	37

ABSTRACT

A Stud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Activities for Adolescents

:Focusing on Gwangju Municipal Art Company

Na-Yeong Kim

Advisor : Prof. Han-Na Lee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dolescence is the period in which changes occur in physics, identity, emotion etc. to the adolescents. Various experiences which adolescents have gone through influence on forming their personalities and developing their self-identity in harmonious and mature way.

Thus, experie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Gukak) is regarded as the firm foundational one which helps adolescents with understanding the root of our culture and maintaining it ideally.

In this dissertation,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main stream of adolescents' own culture, and performance activities provided from numerous municipal organizations for adolescents were reviewed in detail based on related literature and materials. The Gwangju Municipal Theater and the Gwangju Municipal Traditional Orchestra were selected as research references out of six municipal organizations in Gwangju, and comparison and analysis on performance activities for adolescents

provided from these two organizations were carefully presented .

Moreover the survey targeting 123 students of high school first grade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performance has achieved the instructive and educational effect and to what degree it has met their artistic desire. In other words, students' awarenes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as diagnosed, and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programs of those organizations was suggested.

In result, a variety of performance formats involving in adolescents, such as collaborative chamber music performance in which they could participate in, should be brought, and more solid system to advertise the performance activities has to be built up as well.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 자아, 정서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에 각종 감정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정서’ 즉, 자아 체험은 매우 중요하다(임영식·한상철, 2000: 328). 그러므로 이 시기에 어떤 경험을 접하는가에 따라 자아 성숙도 및 조화로운 인격형성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수많은 경험 중 전통 음악에 대한 경험은 향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이들의 삶에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인식하고 민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점에서 미래 전통 음악 문화를 향유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된다.

국악 교육의 실태에 따른 국악 감상 학습을 제언한 김후분(1994)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모두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비중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평소 국악에 대하여 관심정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보통이다”, “적다”, “아주적다”의 순으로 응답수가 많이 나왔으며, 적은 숫자의 학생만이 관심정도가 많은 것으로 표시 하였다. 또한 국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라고 대답하고 있어 국악 교육이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 실시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고 학생들이 국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교육과 병행하며 이루어진다고 보았다(김후분, 1994: 24-25). 그는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악에 대한 관심도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국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조사 (김후분, 1994)

설 문	응 답	집 단 (N,%)			
		남115	여281	396	100%
2. 국악에 대한 평 소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아주 많다	2	7	9	2.3%
	② 많다	3	2	5	1.3%
	③ 보통이다	72	113	185	47.1%
	④ 적다	31	84	115	29.3%
	⑤ 아주 적다	7	75	82	20.9%
*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① 아주 어려서부터	0	1	1	0.3%
	② 초등학교때 부터	41	72	113	28.8%
	③ 중학교때 부터	66	152	218	55.5%
	④ 고등학교때 부터	8	56	64	16.3%

이렇듯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병행하여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이 이들의 문화 예술 소양에 있어 중요한 시발점이며, 문화 예술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분명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오늘날 중, 고등학교 교육은 아직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전인교육의 부족으로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마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국악에 대한 인식도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청소년들이 문화 예술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낸다면, 장차 어른이 된 이후에도 문화 예술 향유를 기대하기란 어렵게 된다. 학교 안에서 행하는 교사와 학생 간에 비슷한 패턴의 음악수업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 한정적이고 수동적인 음악 교육 보다는 매체를 통해 접하는 대중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는 흥미를 잃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접하는 국악 교육 뿐 아니라, 학교 외에서 접하게 되는 체험들 또한 향후 음악적 소양을 기르는데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학생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을 변화 시키고 미래 정서적, 음악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교육보다 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 연주단원들로 구성된 완성도가 높은 무대를 직접 체험하게 한다면, 매체를 통해 간접적 경험을 하거나 학교 안에서 한정적으로 가르치는 것 보다 차원이 다른 음악 정서적 잠재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최근에는 학교마다 수행 평가나 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외부 문화 예술 행사를 접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본인이 원했기 때문이 아닌 성적반영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공연장을 찾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장을 찾고, 음악적 문화 체험을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악 연주 단체가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해마다 각 지역의 문화 예술 단체는 청소년 세대의 관객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나 청소년 협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 공연을 제공하는 등 공연의 방법 및 내용 또한 매년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관객을 동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연은 향후 이들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 외에도 청소년층의 관객이 증가함에 따라 접하기 쉽고 자극적 소재를 포함하는 상업적인 측면을 갖는 공연들 또한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바로잡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광주 시립 예술단 중 국악 단체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연주 활동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찾아가는 예술단’ 연주회를 감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이 교육적이면서도 학생들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하여 청소년 국악교육 활성화 및 더욱 효과적인 국악공연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특징과 청소년 문화에 관한 관련 서적과 선행 연구를 통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범위가 되는 광주시립국극단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의 청소년을 위한 국악 연주활동을 조사하여 연주 내용을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예술단 프로그램을 감상한 광주의 모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인식도 개선 효과 및 반응을 알아보고 찾아가는 예술단 프로그램 중 보완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각 대학의 학위 논문 및 국회 도서관, 전문 서적 등을 통해 청소년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또한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및 각 단체의 카페 및 인터넷 검색, 방문 전화 상담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예술단 프로그램을 감상하였던 광주소재의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기간과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의 범위가 불분명하지 않도록 먼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이라는 기간으로 제한하였으며, 광주시립예술단 6개 단체 내에 국악 연주활동과 청소년 협연 관련 프로그램 및 중,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예술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극단, 국악관현악단 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어 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의 선정은 각 단체별 ‘청소년 협연’이 라든지 타이틀 안에 청소년이 포함 되어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무대를 기획하거나 찾아가는 예술단의 일환으로 중, 고등학교를 방문 연주한 기준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비록 공연 의도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였더라도 청소년이 타이틀에 포함되지 않은 불분명한 경우는 연주활동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는 광주소재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 찾아가는 예술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던 고등학교 1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 대상을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위주로 프로그램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선정된 공연에서 연주되는 프로그램(곡명)은 프로그램 변동 및 연주자 사정, 곡명 기재오류, 앵클이 연주된 경우 등에 의해 실제 진행했던 공연내용과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자가 시립 예술 단체 중 국악연주단체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총 5편의 석사학위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학술지나 단행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강중화(2004)의 "전라도 지역 국악관현악단의 실태"에서는 전라도 지역은 한국 음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며 국악 관현악 또한 현재 한국 음악 연주 레퍼토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갈래이기도 하므로 전라도 지역 국악 관현악의 실태를 살펴 그 특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이를 위해 전주시립국악단, 전북도립국악원, 광주시립국악단, 여수시립국악단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각각 연혁, 단원들의 구성, 단원들에 대한 복지와 급여, 연주 레퍼토리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 연구하였다.

권오현(2007)의 "시립국악단 중심의 지역 국악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주시립국악단을 중심으로"에서는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문화 경쟁력 확보와 문화예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연 분야 활성화라는 목적 아래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국악 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여 보고 청주시립국악단을 중심으로 한 민간국악단체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청주지역 국악 문화 발전 및 활성화를 꾀하고 청주국악의 가치증대를 추구하고며 저변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권유정(2007)의 "연주회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청주시립국악단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청주시립 국악단의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프로그램을 분석, 연구를 통해 청주시립국악단의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재섭(1996)은 "광주 시립 예술단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바야흐로 관립 예술단의 창단이 춘추전국시대를 시대를 맞이하는 시기에 다양한 예술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립예술단'만이 관립예술단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것은 무엇일까? 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시립예술단' 이 다른 예술단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한 공연 활동을 보임으로써 다른 예술단에 우선하여 시립 예술단 중 광주 시립 예술단에 속한 6개 단체의 운영 현황, 연혁, 공연 활동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주영(2010)의 "연주회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대구시립국악단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대구시립국악단 창단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주되었던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을 분석·연구하여 대구시립국악단의 음악적 성향을 알아보고 나아가서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작품 선곡에 연주 성향과 경향을 파악하여 제시 하였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 한 결과, 시립에 관련된 운영 현황 및 연주활동, 레퍼토리 등을 분석하고 지역 단체의 문화 교류 향상과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연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선행 논문은 있었으나, 시립 예술단의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또는 시립 예술단의 국악 교육에 연구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교육적 역할을 연구한 논문 및 학술 논문 또한 선행 연구가 되질 않았기에 시립예술단의 연주활동 중 청소년을 위한 국악 연주활동에 대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 및 보완 되어야할 주제라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정의 및 특징

1) 청소년기의 정의

청소년기(Adolescence)는 성숙한다는 의미의 라틴어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심신 양면에 걸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말한다(박성희, 1999: 14).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에 속하는 청소년기는 사춘기 및 성적 성숙과 더불어 시작되며 청소년이 속한 사회에서의 문화적 기대와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끝이 난다.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불안정과 불균형으로 인한 심한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 청소년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한다(정옥분, 2006: 411).¹⁾

2)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시기이나 자신의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시기이다. 쉽게 말해 어른이 아니지만 어른 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인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려는 청소년기에는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 되고 다른 이들은 주변인으로 착각하여 종종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한다. 요즘 청소년들의 옷차림과 행동들에서 그들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타나는데 염색한 머리, 화장기 진한 얼굴, 단정하지 못한 패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도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라거나 자신의 사랑만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는 생각 등에서도 나타난다(정옥분, 2006: 432)

1)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부른 사람은 G. Stanley Hall로서 독일 작가 괴테와 실러에게서 빌려온 표현이다.

자기중심적 사고와 더불어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의 대표적 특징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등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어려운 문제들은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이다. 제임스 마샤(James E. Marcia)는 에릭슨의 정체감 형성이론에서 위기와 수행의 차원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두 차원을 조합하여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예,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미, 이 4가지로 자아정체감을 분류하였다(박은미, 2007: 13).

정체감 성취란, 자아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상태이고, 정체감 유예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여러 행동을 신념을 가진 상태에서 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이며, 정체감 유실은 자신의 결정을 다른 데에서 그대로 수용함을 말하며, 정체감 혼미란 자아에 대해 안정되고 통합적인 견해를 갖는데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박은미, 2007: 445).

안정한 청소년기에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성적 성숙과 정서적, 사고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동시에 주변의 관심으로부터 혹은 보호자의 보호로부터 일정부분 독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청년이라 불리는 후기 청소년 시기 초에 이루어진다.

청소년이란 단어는 소년과 청년의 합성어로 인간성장 발달단계에서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 시기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는 심신양면이 급격히 발달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과도기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이 이 시기에 접하게 되는 경험의 결과에 따라 미래의 모습도 변하게 된다. 이처럼 아동기와 성인기의 다리 역할을 하는 청소년기는 성인생활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다(박성희, 1999: 13-17).

성인 생활을 마련하는 청소년 시기에 정체감의 위기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아정체감이 자리 잡는 시기의 위기로 이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바르게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그릇된 중심적 사고와 더불어 자아정체감의 혼미를 경험하게 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문제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시기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들을 통한 성취는 미래 이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된다.

3) 청소년기의 정서적 발달

청소년들은 신체적, 지적, 감성적 측면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가지는 유기체적 존재이다. 이 시기에는 급작스러운 신체의 성숙과 더불어 논리적 · 추상적 사고력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확고한 주관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개성이 나타나게 되며 그 개성이 발달하여 하나의 독특한 인격체를 형성하게 된다(이홍수, 1990: 79).

청소년기에 정서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정서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경향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들은 낙관과 비관, 자량과 수치 그리고 사랑과 증오와 같은 상반된 정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장진희, 2003: 23).

앞서 특성에 있어 언급하였듯이, 청소년들은 어린이도 성인도 아닌 중간 위치의 존재들로서 기성세대에 의존하고 싶은 욕구와 독립하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두 욕구의 충돌로 기성세대와 청소년들은 부딪히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속한 세상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속한 이 세상보다 더 이상향의 세상을 갈망하지만 추상적인 그들의 생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추상적이고 불안정한 사고는 그들에게 혼란과 극단적 사상을 야기 시키고 이러한 정서들은 부정적 경향의 청소년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은 교육적으로 순화되고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박은미, 2007: 23).

이러한 이론들로 본다면, 청소년기는 정서적 불안정을 가지고 있는 시기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서적 경험들이 이들의 인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 말 할 수 있다.

심리적인 견지에서 음악은 우리의 본능, 자아, 초자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음악은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표현하며 때로는 이를 해소시켜 주기도 하고 감소시켜 주기도 한다.

음악은 멜로디, 리듬, 화음 등의 요소들이 합쳐져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조용하게 안정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혼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갑작스런 큰 소리는 공포와 불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잘 다듬어진 음악적인 공명은 즐거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리듬적인 음악은 운동적인 활동을 자극하여 긴장을 줄여주

고 불협화음과 날카로운 소리는 긴장을 조장하고 고통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특히 소음은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과로를 초래하며 일반적인 작업 능력과 생산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두뇌신경을 피로하게 하여 많은 질병까지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리드미컬 하고 화성적인 음은 마음을 밝게 하고 행복을 조장하며 감정을 흥분시키거나 슬프게도 한다(김군자, 1998: 16-17).

이처럼 음악은 자아를 강화시키고 감정을 움직이기도 하며, 감정을 승화시키거나 수준 높은 미적 경험과 풍부한 심미적 경향을 갖게 해준다.

2. 청소년기 음악교육의 역할

불안정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음악교육은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심미적 체험을 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생활 속에서 음악의 미를 추구하여 완전한 인격체를 갖추게 하는 데에 그 가치를 두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은 지식과 출세를 위한 교육이 되고 있어 개인의 가장 내면적인 정서와 정신적 생활의 가치를 망각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음악교육,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음악교육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가중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그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대중음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음악의 미적 세계를 경험케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그들 인성의 부정적인 면이 음악의 미적 경험을 통해, 건정한 방향으로 되돌려지는 데에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음악교육이 지향 하는 건전한 인간성 형성에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에게 필연적인 교육이 결핍되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지는 것처럼, 누구나 소유한 인간적 특성에 가장 순수하게 내적 감동을 일으키는 예술인 음악은 왜곡된 인성의 교육을 위해 절실히 요망되는 분야이다(장진희, 2003: 60)

인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음악교육은 앎(knowing),느낌(feeling), 행함(doing)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자아에 대한 내적 정체감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권덕원 외 3인, 2009: 101).

이처럼 음악교육은 음악을 감상하고 체험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행동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엘리엇(D. J. Elliott)²⁾에게 있어서 음악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함축된다. 그것은 ‘음악하기’와 ‘음악성의 발달’이다. 그는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하기 또는 음악 만들기의 경험을 통하여 그가 속한 사회의 음악적 실행(practice)에 깊이 들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악 하기는 그 자체로 목적이며 그 과정에서 음악성이 발달된다고 보았다.

또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적 실행에 참여시키되, 가능한 한 진짜의 경험(authentic experience)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음악이

2) 그는 1995년 『Music Matters』라는 책을 통해 음악교육 철학 분야에서 심미적 음악교육론을 비판하고, 음악적 행위의 교육적 가치 등의 새로운 논점을 제기한 사람이다.

다양한 것이고, 인간적이고, 참여적이고, 사회적이고, 또한 연주되는 예술(performing art)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장진희, 2003: 85) 결국 음악적 경험뿐만 아니라 음악을 배우는 청소년이 음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음악교육은 청소년의 개인별 인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들은 개인별 음악적 욕구와 음악적 필요성을 가지게 되고 음악과 관련한 갈등을 겪기도 하며 음악 안에서 사회 문화권을 알아가고 지적이고 감성적인 만족감을 얻기도 한다.

이 시기에 있어 음악활동을 통한 음악적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여 감성적, 지적인 경험을 갖지 못한다면 예술음악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통속적인 또는 대중적이기만 한 음악에만 몰두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음악적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면 평생 동안 자신의 가치체계 속에 음악을 포함하고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수준 높은 예술음악이 좀 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감성적, 지적으로 깊은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 체험하게 해 주고, 음악을 배우는 청소년들에게는 협연 등의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잠재된 음악성을 더욱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3. 청소년기 국악교육의 역할 및 중요성

국악은 예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민족 고유의 음악을 총칭하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생활해 내려온 집단을 우리 민족이라고 하며, 우리 민족의 정서로 동화되어 고유성과 전통성을 지닌 민족의 음악이다(백병동, 1977). 또한 서양음악이 들어온 근대에 작곡된 곡들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하겠다.

국가마다 역사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 풍습이 달라서 각 나라에 따라 음악도 다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언어의 어법을 바탕으로 하여 그 나라의 음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찬란한 전통문화를 창조해 왔으며 단일 언어를 사용하므로 문화 민족의 긍지를 지닐 만하다.

우리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은 민족 문화 유산에 기대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이 조상의 문화유산을 계승함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때 국악교육은 민족성 확립을 위하여 큰 의의가 있다. 국악은 민족적 차원이나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큰 과업이자 민족주체성을 함양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요체이다(국립국악원, 1998).

우리의 자원이자 우리가 지키고 마땅히 전승할 국악은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청소년 세대에게는 우리의 음악문화인 국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서양음악을 기초로 하는 음악교육 위주로 인해 외래문화의 편향적인 음악풍토가 자리 잡히는 것은 옳지 않다. 음악교육이 단순히 음악의 기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가정과 이웃,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인류를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길러준다고 볼 때, 자신이 속해있는 자기 민족의 음악을 모르는 채 다른 나라의 민족 음악만을 알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의문이 생긴다.

그러므로 민족 고유의 전통과 문화계승을 위하여 국악을 바탕으로 음악을 이해 할 수 있는 청소년을 길러야 한다.

또한 나아가 새로운 문화 창달을 위해 국악을 가르쳐야 한다. 헝가리의 음악학자이자 작곡가 졸탄 코다이(Zoltan Kodaly : 1882-1967)³⁾는 " 음악이 모국어를 배우듯이 어머니의 민요를 따라 익힘으로써 자연스럽게 배움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3) 그는 20세기에 있어 헝가리의 국민주의 음악에 새로운 길을 연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는 수없이 많은 뛰어난 작곡가와 교사를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 중에 헝가리 민요를 넣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등 전국민의 음악적인 재교육을 이루었다.

민족 음악유산인 민요와 민족 예술 가곡을 위한 그의 노력은 헝가리의 보배로운 문화 유산을 후세에 보존·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 효과적인 음악 교육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들 나라의 음악 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했다.

한 민족의 민요 또는 민족적 소재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모든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즉 음계나 민요의 형태를 거의 원형대로 작곡에 활용하는가 하면, 이들의 소재를 낱알이 분석하여 추출한 특징을 살려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였다(이진영, 2007). 이러한 면을 볼 때, 우리 국악은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기 위한 충분한 소재가 될 수 있으며 국악의 훌륭한 요소를 신선한 현대 감각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악의 경험과 배움은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중등과정에서는 초등과정에서 이루어진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고등에서는 중등과정까지 이루어진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특징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우리 민족음악으로서의 모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학습이 될 것이다. 이에 자아와 정서가 재발견 되는 이 청소년 시기에 전통음악을 자주 접해 볼 기회를 가지게 하고, 이론 수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광주시립예술단 국악연주활동(2010-2011)

1. 광주시립예술단의 국악 관련 단체 개관

1) 국극단⁴⁾

(1) 설립목적

1989년 6월 1일 판소리 성지인 예향광주를 빛내고자 제1대 조상현 단장을 중심으로 창단되었으며 시립국극단은 예향 광주의 독특한 예술로 평가받고 있는 남도소리의 전통 국악예술을 발전시켜 광주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대내외에 광주와 한국의 높은 예술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2) 연원 및 변천

1989년 창단 당시 초대 단장은 조상현(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기능보유자)이다.

제2대 단장으로 99. 2월 취임한 인간문화재 성장순 단장(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기능보유자)은 남도소리 본향으로의 명예를 빛내고자 우리 고유의 독창적 예술인 ‘남도소리’ 찾기 운동과 신 창극 ‘쑥대머리’, ‘현해탄에 핀 매화’를 제작 국내 및 미국, 일본공연을 가져 예향 광주의 위상을 널리 선양 시켰다.

제3대 단장으로 '04. 11. 01 취임한 홍성덕 단장은 황진희, 건우와 직녀 등 21세리 문화경쟁시대를 맞아 예향광주의 독특한 예술인 판소리와 전통국악예술을 발전시켜 시민의 문화 향수권 충족을 위해 심혈을 다하였다.

제4대 단장으로 '06. 11. 20 취임한 송순섭 단장은 고경명, 자미탄의 눈물, 유관순, 안중근등 전통 남도소리의 계승발전과 함께 현대적 감각과 조화를 이룬 새로운 창극을

4) 이 부분의 내용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 한 것임.

선보여 국악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수도 조성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다.

제5대 단장으로는 '10. 12. 22 윤진철 예술감독이 취임하였다. 올해로 광주문화예술회관 개관 20주년, 임방울 선생 서거 5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고장이 낳은 최고의 국창으로 칭송되는 임방울 선생의 예술적 삶을 그린 '임방울의 쑥대머리'를 2011년 5월 무대에 올렸다.

광주시립국극단은 현재까지 5회에 걸쳐 단장(예술 감독)의 변천이 있었으며, 다음 <표 2>은 단장(예술 감독)의 변천 및 재임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시립국극단의 단장(예술감독) 변천 및 재임기간

역대 예술감독(단장)	이 름	재 임 기 간
1대 예술감독	조상현	1989. 06. 01 ~ 1998. 12. 31
2대 예술감독	성창순	1999. 02. 08 ~ 2004. 06. 30
3대 예술감독	홍성덕	2004. 11. 01 ~ 2006. 10. 31
4대 예술감독	송순섭	2006. 11. 20 ~ 2010. 11. 19
5대 예술감독	윤진철	2010. 12. 22 ~ 현 재

(3) 주요 활동

1989년 10월 창단공연으로 「놀보전」을 공연하였고, 1990년 4월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역시 「놀보전」을 공연하였다.

그동안 국극단은 창극 놀부전, 심청전, 춘향전, 쑥대머리, 황진이, 강릉매화전, 배비장전, 의병장 경명, 건우와직녀 등 정기공연을 가졌으며 판소리에춘향가,심청가,홍보가,수궁가,적벽가,남도민요,가야금병창 등이 있으며, 무용에 오고무, 부채춤, 살풀이, 승무, 꼭두각시, 검무, 한량무, 교방무, 강강술래 등이 있다. 이외에 기악을 겸한 사물놀이에 산조합주, 사물놀이, 모듬북, 길놀이 등이 있다.

약 300여회의 국내공연과 일본 외무성초청, 김대중 대통령 APEC정상회담, 뉴질랜드 국민방문 경축공연등 8차례의 해외공연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 바 있다.

2) 국악관현악단⁵⁾

(1) 설립목적

광주광역시 국악 발전과 민속음악의 발굴과 연주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광주시민의 국악관현악단에 대한 공감대와 지역문화의 조화로운 발전 아래 전통음악의 발굴과 연주가 기본 사업이며, 그 밖에도 새로운 국악 관현악곡을 창작하고 연주하여 관중과 함께 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는 일을 주력사업으로 한다.

(2) 연원 및 변천

1985년에 발족된 사설단체 전남국악관현악단을 모태로 연주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뒤 1989년 광주국악관현악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을 계속하였는데, 당시의 연주원들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를 졸업한 전문 음악인들이 중심이었다.

1994년 광주광역시는 국악 발전과 민속음악 및 창작 국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하여 광주국악관현악단을 기초로 하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연주단원들을 상임단원으로 임명하여 편제를 확대 설립하였다.

1994년 9월 1일 정식으로 창단되었고, 동년 10월 23일에 창단연주회를 개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립국악관현악단은 10월 23일 광주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졌으며, 초대 단장 겸 상임지휘자는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인 김광복(金光福)이다.

제 2대 단장은 대금의 명인이신 조창훈(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예능보유자)이었다.

제3대 단장은 목원대학 학국음악과에 재직 중인 이태백 교수는 다양한 악곡들과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제4대 단장은 우석대학교에 재직 중인 심인택 교수이며 전통음악의 발굴과 연주를 기본 토대로 하여, 보다 관중과 함께하는 친숙한 음악을 무대에 올리는 기획을 하고 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현재까지 4회에 걸쳐 단장(지휘자)의 변천이 있었으며, 다음

5) 이 부분의 내용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 한 것임.

<표 3>은 단장(지휘자)의 변천현황 및 재임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시립국악관현악단의 단장(지휘자) 변천 및 재임기간

역대 지휘자(단장)	이름	재임기간
1대 지휘자	김광복	1994. 8. 8 ~ 1997. 9
2대 지휘자	조창훈	1998. 3. 20 ~ 2002. 12. 31
3대 지휘자	이태백	2004. 1. 1 ~ 2007. 12. 31
4대 지휘자	심인택	2008. 12. 1 ~ 현재

(3) 주요활동

광주시립 국악 관현악단은 지역 국악발전에 공헌하고, 민속음악의 발굴과 연주, 그리고 차원 높은 관현악의 연주와 창작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남도 특유의 음악성을 살려 육자배기 선율의 성음을 극대화하는 연주곡들을 무난히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관현악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중진혼곡과 민요가 함께하는 관현악곡 등으로 관객에게 알려져 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은 수시공연과 정기연주회로 크게 구별되는데, 이 단체는 수시공연 위주의 직접 시민과 만나고 찾아 가는 움직임은 예술단으로의 특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불우한 시설을 찾아 위문공연을 한다거나 각 학교를 찾아가 국악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해설이 있는 공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공연은 1997년 8월중에 미국 국악 협회 동부지회의 초청으로 뉴욕공연을 2회 실시하는 등 민족 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3) 시사점

이처럼 두 단체 각각 4회와 5회에 걸쳐서 단장의 임기가 있었고, 재임했던 단장들 역시 예술인으로서 손색없이 훌륭한 업적들과 역할을 맡았다.

연주 프로그램 구성은 정기연주회, 수시연주회 특별연주회로 구성되었다. 시립예술단 특별 연주회에 속하는 찾아가는 예술단 프로그램은 두 단체 모두 지난 2년간 요양원, 소년원, 복지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100여곳을 직접 방문하며 무수히 많은 공연을 진행하였다. 광주 지역의 문화 향유 및 발전을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세계를 돌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문화 사절단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두 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수많은 연주활동 중 본 연구자는 청소년을 위한 연주 활동에 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하며, 조사 연구는 다음 장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2. 시립예술단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 분석

본 연구자는 광주시립 예술단에 속한 6개 단체 중 광주시립국극단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을 선정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을 조사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두 단체의 활동내용은 각 단체의 인터넷 카페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모자란 부분에 관하여서는 직접 방문 및 통화를 통해 팜플렛 및 공연 정보를 수집하여 표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의 횟수와 연주회 개최 시기, 연주 형태와 찾아가는 예술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 광주시립국극단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광주시립국극단은 2년에 걸쳐 총 1회의 청소년 협연 음악회와 11회의 찾아가는 예술단을 시행하였다.

청소년 협연 음악회는 2년 동안 1회에 그쳐 일회성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청소년 협연 음악회는 오디션을 통해 전통국악을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을 공연에 올려 청소년들이 전문 국악인과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악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역량을 키우고 비슷한 연령대인 학생을 세움으로 인해 청소년 관객들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광주시립국극단의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은 2010년 4회, 2011년 7회에 걸쳐 총 11회의 방문 공연이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1곳, 2011년에는 중학교 5곳과 고등학교 2곳으로 총 7회 방문하여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2년에 걸친 찾아가는 예술단은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실시한 수가 더 많았다. 공연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는 민요, 기악합주, 판소리, 무용으로 짜여 있었으며 학교마다 진행되는 방식은 같았다.

또한 2년간의 찾아가는 예술단 방문 횟수를 조사한 결과, 2010년과 2011년 모두 고

등학교 보다는 중학교에 방문하여 공연한 비율이 더 높았다.

다음 <표 4>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광주시립국극단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광주시립국극단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

공연일자		구분	장소	비고
2010	4. 23	찾아가는 예술단	수완고등학교	
	4. 29	찾아가는 예술단	대자중학교	
	4. 30	찾아가는 예술단	천곡중학교	
	5. 3	찾아가는 예술단	진남중학교	
	5. 27	수시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청소년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2011	5. 30	찾아가는 예술단	상일여자고등학교	
	6. 3	찾아가는 예술단	신창중학교	
	6. 7	찾아가는 예술단	대촌중학교	
	6. 10	찾아가는 예술단	주월중학교	
	6. 17	찾아가는 예술단	용두중학교	
	6. 22	찾아가는 예술단	설월여고	
	6. 24	찾아가는 예술단	임곡중학교	

2)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총 2회의 청소년 협연 음악회와 14회의 찾아가는 예술단을 시행하였다.

청소년 협연 음악회는 2년 동안 2회를 수시연주회의 일환으로 ‘청소년 협연 - 꿈꾸는 나무’라는 같은 주제로 1년에 1회씩 매년 6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정기적인 청소년 협연 음악회는 청소년 관객의 창출뿐만 아니라 현재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매년 오디션을 통하여 전문적연주단체인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협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활동이다.

찾아가는 예술단 프로그램은 2010년 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찾아가는 비중이 거의 비슷하였다. 2011년에는 중학교는 미 신청으로 인해 미 실시 되었고, 고등학교는 3곳의 공연을 하여 고등학교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지난해보다 방문연주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공연 연주 프로그램의 구성은 창작관현악곡, 민요합주, 독주, 중주, 궁중음악합주로 짜여 있으며, 독주와 중주의 경우는 학교마다 악기가 무작위로 변경하여 제공되었다. 또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주로 학기가 진행 중인 4월, 5월, 10월, 11월, 12월에 걸쳐 찾아가는 예술단 방문공연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5>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광주시립국극단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

공연일자		구 분	장 소	비 고
2010	4. 22	찾아가는 예술단	성덕중학교	
	5. 2	찾아가는 예술단	설월여자고등학교	
	5. 27	찾아가는 예술단	경신여자고등학교	

2011	6. 1	찾아가는 예술단	상일여자고등학교	
	6. 27	수시 연주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2010청소년 협연 “꿈꾸는 나무”
	8. 31	찾아가는 예술단	일동중학교	
	10. 7	찾아가는 예술단	전남공업고등학교	
	11. 11	찾아가는 예술단	용두중학교	
	12. 7	찾아가는 예술단	동명중학교	
	12. 9	찾아가는 예술단	봉산중학교	
	12. 14	찾아가는 예술단	광주자동화설비공업 고등학교	
	4. 14	찾아가는 예술단	광주자연고등학교	
	5. 12	찾아가는 예술단	문정여자고등학교	
	6. 2	찾아가는 예술단	금호고등학교	
	6. 23	수시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2011청소년 협연 “꿈꾸는 나무”

3) 분석결과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을 2년간에 걸쳐 비교·분석해 볼 때 청소년을 위한 협연 음악회는 두 단체 모두 청소년 관객 창출뿐만 아니라 전통 국악을 공부 하고 있는 청소년 중 실력 있는 청소년들 협연자들을 대상으로 단체와 협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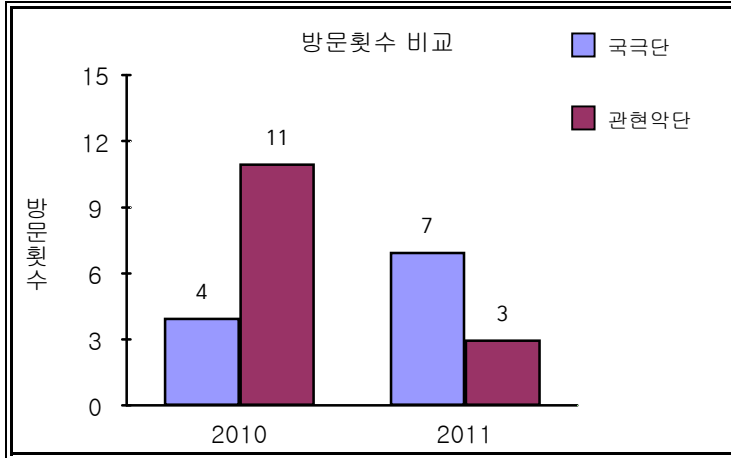
그러나 광주시립국극단의 경우 1회성의 성격을 띤 협연 음악회라는 것에 비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매년 정기적인 오디션을 거쳐 음악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형태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단체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은 수시공연의 성격을 띤 청소년 협연 음악회와 찾아가는 예술단 프로그램이라는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두 단체 모두가 공연과 함께 해설을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보다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기에 친근하게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민요와 대중음악 공연 등을 기획하여 공연하였다.

찾아가는 예술단은 2년간 총 광주시립국극단 11회,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14회를 진행하였다.

연주 시기는 두 단체 모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공연하기 때문에, 학기가 진행되는 달에 주로 진행하였고, 해마다 연주 장소와 횟수는 두 단체 모두 신청학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치 않았으나, 아래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광주시립국극단은 전년도에 비해 학교 방문횟수가 상승하였으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경우는 하락하였다.

두 단체의 찾아가는 예술단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총 방문횟수 변화에 비해 다음 [그림 1]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림 1] 찾아가는 예술단 총 방문횟수 비교

또한 광주시립 국극단의 경우 중학교를 방문하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광주시립국악 관현악단의 경우는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극단의 가, 무, 악 중심 연주프로그램과 국악관현악단의 감상중심의 연주프로그램 구성이 청소년의 학년 구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청소년들의 시간적, 제약적 상황들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의 공연은 국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 외에도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회 관람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이러한 기회들을 연속적으로 받는다면 단체에게는 일회성에 그친 공연이더라도 학교 안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찾아옴으로써 다양한 연주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광주시립국극단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별공연 프로그램에 속해 있기에 겹쳐서 공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한 단체로 보았을 때는 일회성에 그치는 공연이지만, 학교의 입장에서 용두중학교나 설월여고, 상일여고의 경우처럼 두 단체를 모두 신청하여 관현악 중심으로 이뤄진 국악관현악과 가.무.악 중심으로 이뤄진 국극단 공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연계적으로 다양한 국악감상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시립국악관현악단과 시립국극단의 방문 음악회는 더욱 더 폭넓은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처럼 찾아가는 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연계가 좀 더 연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3. 찾아가는 예술단 청소년 설문조사 및 분석

현재 광주문화예술회관의 6개 단체 모두 찾아가는 음악회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예술단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중, 고등학교를 방문해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그 중 광주시립국극단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찾아가는 예술단에 관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해보고자 광주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찾아가는 예술단을 감상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유효한 120개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회수된 자료는 Microsoft Excel 2007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1) 설문지 내용 및 문항의도

본 연구자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중 찾아가는 활동을 조사하고 청소년에게 음악회의 의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식실태, 음악회관람계기, 관람 미치는 영향, 음악회 만족도, 전통문화인식개선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설문지를 구성 하였다.

(1) 광주시립예술단 국악공연 사전 관람 유무

이 문항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광주시립예술단이 주관하는 국악단체공연을 한번이라도 접해보았는가에 관한 인식도 질문이다.

(2) 공연관람 계기

이 문항은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 응답자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며, 국악공연을 접했던 계기가 타의적인가, 자의적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3) 공연관람 장소

이 문항은 찾아가는 음악회의 일환으로 다른 곳에서 접한 적이 있는지, 혹은 연주회장에서 정기연주회나 수시연주회를 접하였는지 등 관람한 장소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

이다.

(4), (4-1) 공연관람 후 만족도

이 문항은 이전의 공연을 보고 난 후, 청소년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질문이다. 4-1 문항은 만족도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청소년의 공연에서 원하는 욕구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5) 공연의 교육적 효과 - 유익성

이 문항은 찾아가는 예술단의 유익성에 관련된 질문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④번 이하 유익하지 못하다는 쪽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교육적 효과가 낮다고 가정한다.

(6) 음악회의 흥미유발 정도

이 문항은 찾아가는 예술단의 흥미유발에 관련된 질문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④번 이하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음악적 정서를 자극하는 효과가 낮다고 가정한다.

(7) 공연구성에 대한 인지적 효과

이 문항은 찾아가는 예술단의 공연프로그램 구성에 관련된 질문이다. 응답자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고 어떤 구성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본다.

각 문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교과서에 나오는 곡 연주 : 프로그램 구성의 친숙하며 교육적인 효과
- ②대중적인 곡 연주 : 청소년의 흥미유발 효과
- ③수준 높은 곡 연주 : 음악 교육적이며 음악성을 자극하는 효과
- ④기타 : 다른 기타 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한다.

(8) 전통문화에 관한 인식

이 문항은 찾아가는 예술단 관람 후 전통문화에 관한 인식개선유무를 질문하는 문항으로서 ④번 이하 응답의 경우 인식개선이 낮다고 본다.

(9) 청소년 음악 감상활동에 미치는 효과

이 문항은 찾아가는 예술단 관람 후 전통문화에 관한 인식개선 및 지속적인 음악회 감상활동 유무를 질문하는 문항으로서 ⑤번 이하 응답의 경우 인식개선이 낮다고 본다.

(10) 예술공연과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상관관계

이 문항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한 시립예술단 프로그램이 얼마나 청소년들에 전반적으로 유익하며 문화향유에 있어 어떠한 의의와 영향력이 있는지 그 상관관계에 관한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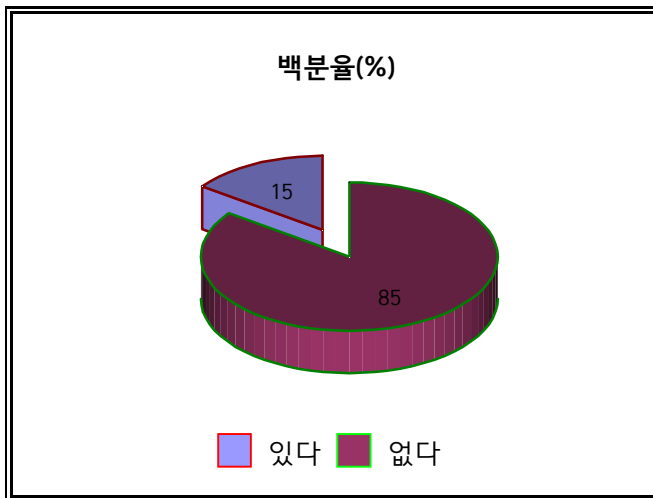
이상 설문지 안에 기재한 10가지 문항별 의도에 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 장에서 설문내용에 관한 분석을 다루도록 하겠다.

2) 시립예술단 국악단체에 대한 인식도 조사

시립 예술단 국악단체에 대한 인식도 조사 부분의 설문내용은 국악공연 기존 인식도, 공연관람 계기, 공연관람 장소, 국악단체의 공연을 미리 접한 경험에 후기에 관해 조사하는 4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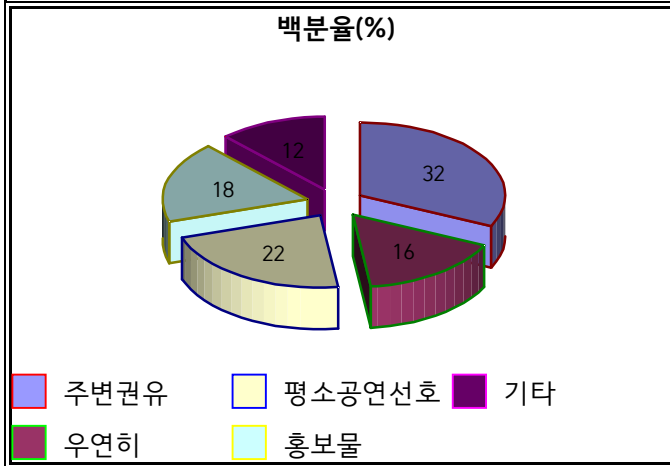
이전에 시립예술단의 국악공연을 관람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전체의 15%에 해당하였으며, 시립예술단의 국악공연을 관람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85%를 차지했다.

1번 문항에서 공연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에 해당하여서만 이하 2, 3, 4번에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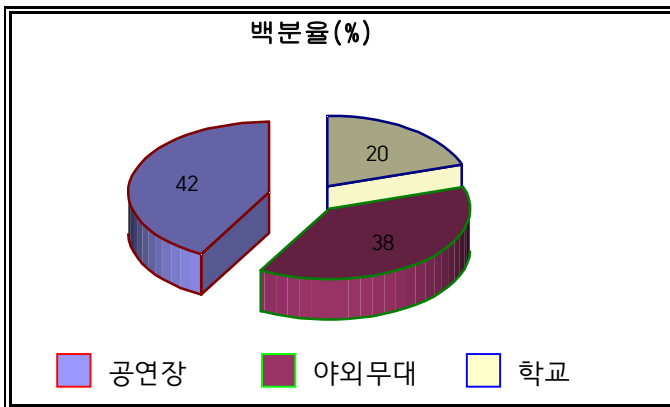
[그림 2] 국악공연 이전 관람 유무

공연을 보게 된 계기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응답을 선택하였는데, [그림 3]과 같이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보게 된 응답자가 32%로 가장 높았다. 우연히 지나다가 공연을 보게 된 응답자는 16%, 평소 공연을 좋아해서 보게 된 경우는 22%였고, 홍보를 보고 자발적으로 보게 된 경우는 18%에 해당했다. 이번 응답에서 12%를 차지했던 기타의견으로는 '학교수행평가 때문에', '표를 우연히 받아서' 등이 있었다.



[그림 3] 공연관람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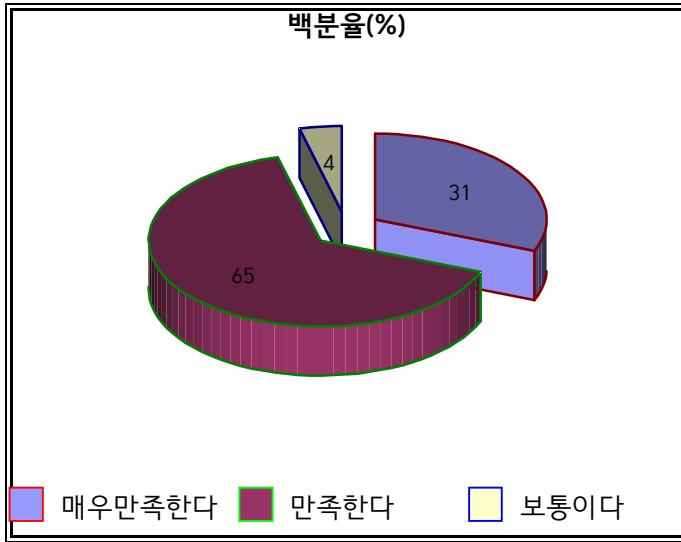
시립예술단의 국악공연을 보았던 장소에 관한 질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야외무대와 공연장이 각각 42%, 38%로 높았다. 또한 학교에서 보았다는 경우가 20%였다. 또한 기타의견에 대하여서는 응답이 없었다.



[그림 4] 공연관람 장소

공연을 보고 난 후의 느낌에 관한 질문에서는 [그림 5]와 같이 만족한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31%, 보통이라는 의견이 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으로 이유를 주관식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멋있다’, ‘배웠던 익숙한 민요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다’, ‘재미있다’, ‘감동이 느껴졌

다’, ‘흥겹고 즐거웠다’ 등의 의견 기입을 통하여 학생들의 그전에 시립예술단의 국악공연에 대한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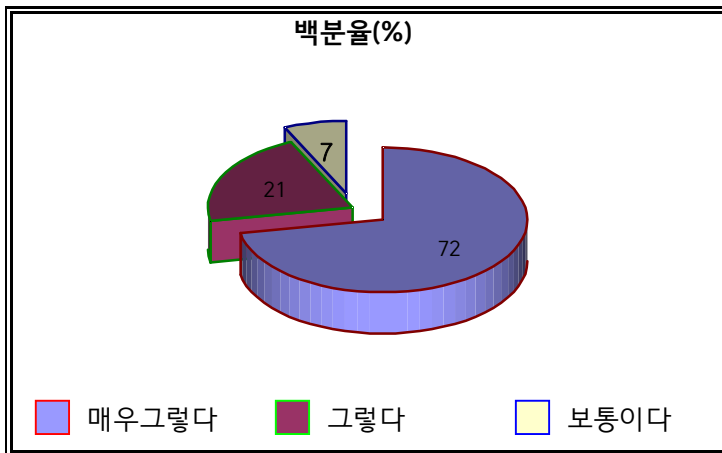


[그림 5] 공연관람 후 만족도

3)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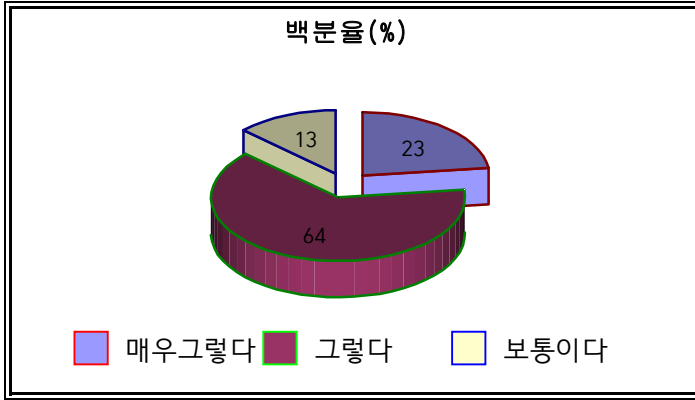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는 음악회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흥미유발의 정도, 공연구성에 대한 인지적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3개의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이번 문항부터는 이전의 공연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이번 찾아가는 음악회를 관람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그날의 공연이 유익한 시간이었는지에 관한 문항에서는 [그림 6]에 정리한 것처럼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그렇다는 의견이 21%, 보통이었다는 의견이 7%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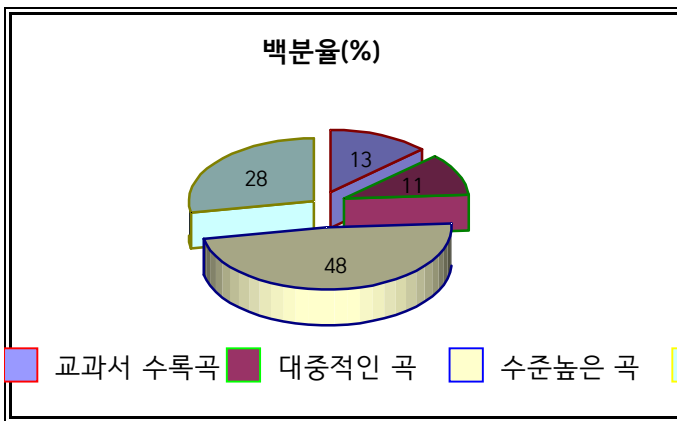
[그림 6] 공연의 교육적 효과- 유익성

공연이 응답자의 흥미를 유발시켰는가에 관한 질문에서는 64%가 그렇다는 의견을 제시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3%가 매우 그렇다, 13%가 보통이라고 [그림 7]과 같이 말했다. 찾아가는 예술단의 공연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앞의 질문과 연계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흥미유발과 유익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음악회의 흥미유발 정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구성이 인상적으로 느껴졌는지에 관해 한 질문에서는, [그림 8]에서와 같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수준 높은 곡이 연주되었다는 의견이 4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기타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으며 그 중 가장 많이 쓰인 응답은 ‘국악기 독주 또는 이중주가 인상적이다’와 ‘경쾌한 곡들이 기억에 남았다’는 답변이었다. 다음으로는 13%가 교과서에 나오는 곡들이 연주되었다, 11%의 응답자가 대중적인 곡들이 연주된 것이 인상적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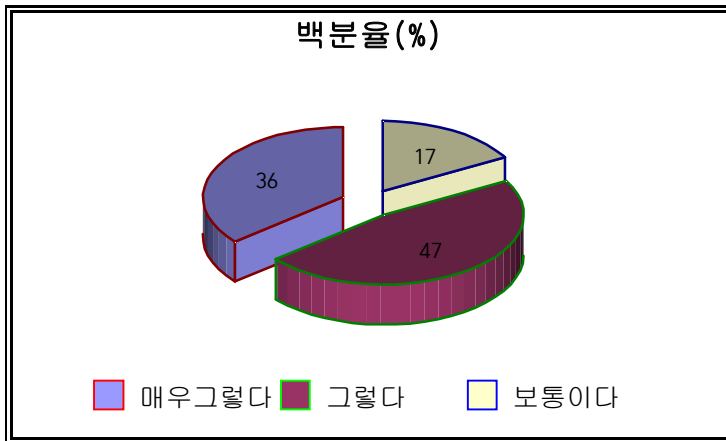


[그림 8] 공연구성에 대한 인지적 효과

4) 청소년 전통문화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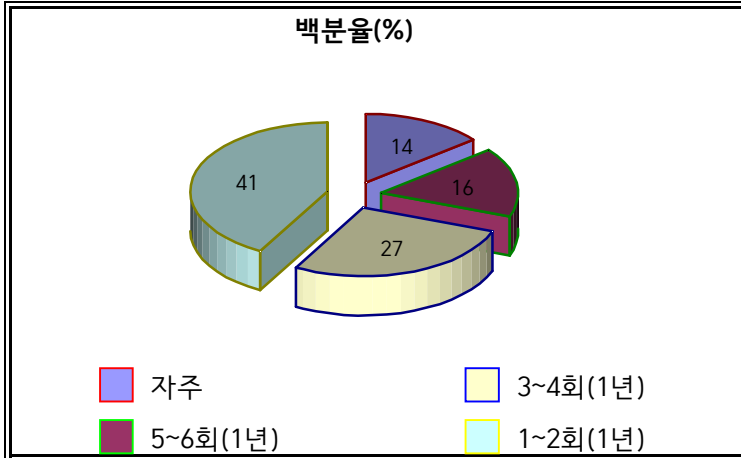
청소년 전통문화에 대한 조사 부분은 전통문화에 관련한 인식개선 유무, 전통음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예술단 관람 후 전통음악 및 문화에 관한 지속적인 음악 감상활동 관심 여부 조사, 예술 공연과 청소년들의 문화영향력에 관한 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문항은 전통 문화에 관심이 생겼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그림 9]에 있듯, 47%의 학생이 그렇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는 대답이 36%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보통이라는 의견이 17%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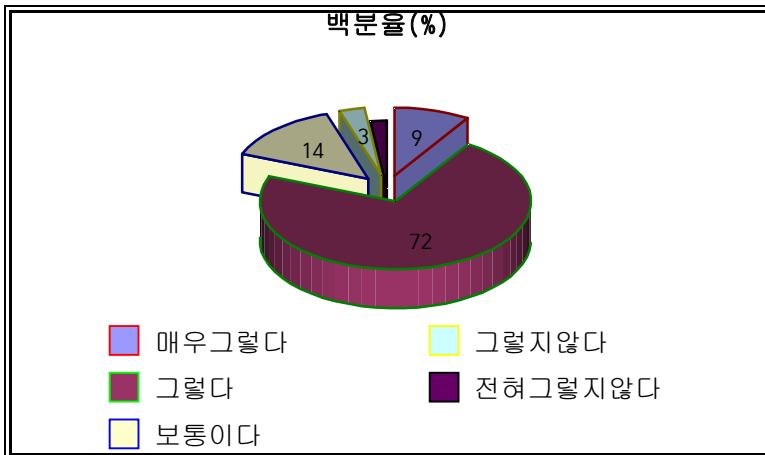
[그림 9] 전통문화에 관한 인식

국악공연을 몇 회 관람 하고 싶은가에 관한 질문에서는 [그림 10]과 같이 41%의 학생들이 1년에 1~2회 정도 관람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1년에 3~4회 관람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2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1년에 5~6회 관람하고 싶다는 의견은 16%, 자주 관람하고 싶다는 의견은 14%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그림10] 청소년들의 음악 감상활동에 미치는 효과

시립 예술단 및 국악단체의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관해 [그림11]에서와 보이듯, 72%의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14%, 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가 나왔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를 차지하였다.



[그림11] 예술단공연과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상관관계

5) 분석결과

본 연구자가 설문을 하기에 앞서 학교를 방문하여 공연을 함께 보며 느낀 점은 학교의 공연은 일반 연주회장에서의 공연보다 소규모이고, 또한 강당에서 공연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이 관객의 입장에서는 공연을 하는 연주자들의 호흡이나, 모습들을 더욱 가까이 볼 수 있기에 공감대 형성에 있어 더욱 친숙하고 가깝게 느낌을 받았다.

설문조사 1번에서 공연을 접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의 비율은 85%에 달하기에 이번 공연을 본 이후의 효과는 좀 더 분명 했을 것이라 보며, 국악공연을 처음 접하다시피 한 학생들이 많았음에도 가까워진 거리만큼이나 학생들은 떠들거나 산만해지지 않고 공연을 집중하여 한곡 한곡이 끝날 때마다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찾아가는 예술단의 공연 효과를 함께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찾아가는 예술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연관람 만족도와 흥미유발, 전통문화 인식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공연을 얼마나 자주 감상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은 이러한 예술단체의 공연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멀리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 음악회에 대한 홍보와 프로그램의 구성이 더욱 체계적이고 활발히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교육적인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결과 및 제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불안정한 청소년 시기에 교육적, 정서적, 문화적 관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자아와 정서가 재발견 되는 청소년 시기에 전통음악을 자주 접해 볼 기회를 가지게 하고, 이론 수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미래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체험은 학교에서 하는 수업만으로는 여전히 수동적이고 모방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서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게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학교 수업만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국한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여러 프로그램들과 연계된 교육 또한 이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라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을 위한 연주 활동 중 국악연주활동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광주시립예술단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였다. 광주시립예술단의 6개 단체 중 청소년을 위한 국악연주활동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고자 광주시립국극단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두 단체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을 조사한 결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그 첫 번째 형태는 관객을 동원하여 공연장 내에서 공연하는 형태인 정기 및 수시 연주회(청소년 협연)이고, 둘째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공연을 하는 형태인 음악회공연(찾아가는 예술단)이다. 그 중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형태인 찾아가는 예술단은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연을 관람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응을 조사하여 시립예술단의 청소년을 위한 국악연주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일정한 시기를 두고 좀 더 다양한 공연의 형태를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광주시립국극단의 경우에는 일회성에 가까운 수시연주회를 가지고 있고, 광주시립관현악단의 경우에는 1년에 1번 수시연청소년 협연의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찬조 출연의 기회는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없는 교육적 효과를 줄 것이므로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현장 참여를 통한 문화정서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두 단체 모두가 청소년 협연 구성 외에 다른 구성을 갖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찾아가는 예술단은 광주 각 지역 학교 홍보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신청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광주시립예술단 6개 단체들과 연계적인 공연 제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속적인 공연관람을 희망하며, 또한 그들의 문화생활에도 도움이 되리라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찾아가는 음악회의 연속적 공연제공은 학교마다 음악교육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본다.

찾아가는 예술단의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합주뿐만 아니라 악기들은 독주나 이중주 및 협연 프로그램을 넣어 악기의 개별 소리를 감상하게 하는 곡목도 포함시키는 등 조금 더 다양한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들은 청소년 개개인의 성향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관현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여러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다양한 감성의 자극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시립예술단의 국악공연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음악적 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며, 국악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음악 교육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문화신장을 위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그들의 향후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 더욱 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종화 (2004). 전라남.북도 지역의 국악관현악단 실태 분석 .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고성혜·이용교 (1996). **청소년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광주문화예술회관 <http://www.gjart.net/main/main.asp>, 2011년11월15일 검색.
- 광주시립국극단 카페 <http://www.gjart.net/main/main.asp>, 2011년11월15일 검색.
-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카페 <http://cafe.daum.net/KJ-Koreanochestra/>, 2011년11월15일 검색.
- 국립국악원 (1998). **초등교사를 위한 우리 음악 이론**. 서울: 국립국악원.
- 권덕원 외 3인 (2009). 개정판. **음악교육의 기초**. 광주: 교육과학사.
- 권오현 (2007). 시립국악단 중심의 지역 국악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주시립국악단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 권유정 (2007). 연주회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청주시립국악단 활성화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 김군자 (1998). **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김재섭 (1996). 光州市立藝術團의 運營現況 및 改善 方案에 관한 研究.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초은 (2011).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실태조사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후분 (2007). 국악 교육의 실태 연구에 따른 국악 감상 학습의 제언 :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정·박성옥 (2001).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실태분석**. 自然科學 제 12권. 대전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 민인철 (2009).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 분석**. 광주: 광주발전연구원.
- 박성희 (1999).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 박은미 (2007). 청소년 인성형성에 대한 음악 감상 교육의 역할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병동 (1977). **대학음악이론**. 제 3판.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 서승미 (2005).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지아 (2008). 관객 개발을 위한 ‘스쿨 콘서트’ 방안 연구: 소도시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원혜림 (2008). 수도권 지역 시립합창단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혜 (2009). 청소년 음악회 조사연구 :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영식·한상철 (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 학문사.
- 이주영 (2010). 연주회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대구시립국악단 활성화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이진아 (2009). 중등 국악교육에 대한 음악교과서 분석 및 현장 실태 조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진영 (2007). 초등학교 국악교육 실태조사 연구: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진희 (2003). 청소년기 인간형성을 위한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옥분 (2006).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B0005270, 2011년11월 17일검색.
- 한국학중앙연구원 검색. <http://www.aks.ac.kr/aks/Default.aspx>, 2011년11월17일검색.

8. 오늘 공연을 관람하고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9. 이러한 국악공연을 몇 회 정도 관람하고 싶습니까?

①자주 ②1년에 5~6회 ③1년에 3~4회 ④1년에 1~2회 ⑤보고 싶지 않다

10. 시립예술단 및 국악단의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줄 것
이라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성의껏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시립국극단 2010-2011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기록

공연일자	구분	장소	
2010	4.21	찾아가는 예술단	죽산 실버케어홈
	4.21	찾아가는 예술단	패밀리 전문요양원
	4.22	찾아가는 예술단	성요셉 요양원
	4.22	찾아가는 예술단	계림초등학교
	4.23	찾아가는 예술단	수완고등학교
	4.23	찾아가는 예술단	산정초등학교
	4.26	찾아가는 예술단	남구 노인복지관
	4.26	찾아가는 예술단	장애인 종합복지관
	4.27	찾아가는 예술단	효사랑 송정요양원
	4.28	찾아가는 예술단	일신초등학교
	4.28	찾아가는 예술단	세실리아 요양원
	4.29	찾아가는 예술단	대자중학교
	4.29	찾아가는 예술단	광주 작은 예수의 집
	4.30	찾아가는 예술단	천곡중학교
	4.30	찾아가는 예술단	바라밀 실버하우스
	5.3	찾아가는 예술단	전남중학교
	5.3	찾아가는 예술단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5.4	찾아가는 예술단	행복재활원
	5.6	찾아가는 예술단	쌍촌종합복지관
	5.6	찾아가는 예술단	시영 종합사회복지관
5.7	찾아가는 예술단	호연실버홈	
5.7	찾아가는 예술단	이일성로원	
5.10	찾아가는 예술단	고실초등학교	
5.10	찾아가는 예술단	두암초등학교	

2011	5.30	찾아가는 예술단	원광효도복지센터
	5.30	찾아가는 예술단	상일여자고등학교
	5.31	찾아가는 예술단	평안의집
	5.31	찾아가는 예술단	남구요양병원
	5.31	찾아가는 예술단	인광전문요양원
	5.31	찾아가는 예술단	(사)광주시각장애인협회
	5.31	찾아가는 예술단	한결흙요양원
	6.1	찾아가는 예술단	호연실버홈
	6.1	찾아가는 예술단	전남성노원
	6.2	찾아가는 예술단	어룡초등학교
	6.2	찾아가는 예술단	봉선초등학교
	6.3	찾아가는 예술단	신창중학교
	6.3	찾아가는 예술단	광주세광학교
	6.7	찾아가는 예술단	뜰안애요양원
	6.7	찾아가는 예술단	대촌중학교
	6.8	찾아가는 예술단	경양초등학교
	6.8	찾아가는 예술단	보금자리요양센터
	6.9	찾아가는 예술단	하남중앙초등학교
	6.9	찾아가는 예술단	빛고을노인복지재단
	6.10	찾아가는 예술단	문우초등학교
	6.10	찾아가는 예술단	주월중학교
	6.13	찾아가는 예술단	벤엘타운
	6.13	찾아가는 예술단	인광노인요양병원
	6.14	찾아가는 예술단	어등초등학교
	6.14	찾아가는 예술단	한희그린실버요양원
	6.15	찾아가는 예술단	패밀리전문요양원
	6.15	찾아가는 예술단	김도경요양원
	6.16	찾아가는 예술단	수완실버빌
	6.16	찾아가는 예술단	인애사랑의집
	6.17	찾아가는 예술단	용주초등학교
6.17	찾아가는 예술단	용두중학교	
6.20	찾아가는 예술단	금부초등학교	
6.20	찾아가는 예술단	에덴실버타운	

2011	6.21	찾아가는 예술단	용연실버빌
	6.21	찾아가는 예술단	동명전문요양원
	6.22	찾아가는 예술단	운암초등학교
	6.22	찾아가는 예술단	설월여고
	6.23	찾아가는 예술단	마재초등학교
	6.23	찾아가는 예술단	물댄동산한울교회 요양원
	6.24	찾아가는 예술단	하나비전실버홈(요양원)
	6.24	찾아가는 예술단	임곡중학교
	6.27	찾아가는 예술단	천혜경로원
	6.27	찾아가는 예술단	문흥1동주민센터
	6.28	찾아가는 예술단	침단초등학교
	6.28	찾아가는 예술단	농성초등학교
	6.29	찾아가는 예술단	세실리아요양원
	6.29	찾아가는 예술단	광주선광학교
	6.30	찾아가는 예술단	주사랑복지센터
	6.30	찾아가는 예술단	꽃메요양원
	11.8	찾아가는 예술단	평안의집
	11.8	찾아가는 예술단	광산구 수완보건지소
	11.9	찾아가는 예술단	원광효도복지센터
	11.9	찾아가는 예술단	효사랑주월의집
	11.10	찾아가는 예술단	한희효사랑의집
	11.11	찾아가는 예술단	광주소망병원
	11.15	찾아가는 예술단	방림초등학교
	11.15	찾아가는 예술단	용연실버빌
	11.16	찾아가는 예술단	인광전문요양원
	11.16	찾아가는 예술단	로렌시아의집
	11.17	찾아가는 예술단	광주선광학교
	11.17	찾아가는 예술단	패밀리전문요양원
	11.18	찾아가는 예술단	상이군경북지회관
	11.22	찾아가는 예술단	광주중앙노인복지센터
11.23	찾아가는 예술단	효덕주관보호센터	
11.23	찾아가는 예술단	행복노인전문요양원	
11.24	찾아가는 예술단	꽃메요양원	
11.25	찾아가는 예술단	송정권노인복지회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찾아가는예술단 2010-2011공연 기록

공연일자	구 분	장 소	
2010	4.13	찾아가는 예술단	일동초등학교
	4.22	찾아가는 예술단	성덕중학교
	5.2	찾아가는 예술단	설월여자고등학교
	5.27	찾아가는 예술단	경신여자고등학교
	6.1	찾아가는 예술단	상일여자고등학교
	6.3	찾아가는 예술단	세광학교
	6.9	찾아가는 예술단	전남성노원
	6.10	찾아가는 예술단	환희그린실버요양원
	8.31	찾아가는 예술단	일동중학교
	10.5	찾아가는 예술단	남초등학교
	10.7	찾아가는 예술단	전남공업고등학교
	10.12	찾아가는 예술단	인광희망의샘
	11.11	찾아가는 예술단	용두중학교
	11.16	찾아가는 예술단	침단초등학교
	12.2	찾아가는 예술단	은혜학교
	12.7	찾아가는 예술단	동명중학교
	12.9	찾아가는 예술단	봉산중학교
12.14	찾아가는 예술단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2011	3.17	찾아가는 예술단	대성초등학교
	3.24	찾아가는 예술단	풍영초등학교
	3.17	찾아가는 예술단	일곡한솔전문요양원
	3.24	찾아가는 예술단	광주효자요양병원
	3.31	찾아가는 예술단	한울초등학교
	3.31	찾아가는 예술단	빛고을정신요양원 (나주)
	4.14	찾아가는 예술단	송정초등학교
	4.14	찾아가는 예술단	광주자연고등학교
	4.21	찾아가는 예술단	광림초등학교
	4.21	찾아가는 예술단	효다음
	5.12	찾아가는 예술단	문정여자고등학교
	5.26	찾아가는 예술단	동곡초등학교
	6.2	찾아가는 예술단	금호고등학교
	6.3	찾아가는 예술단	은혜학교
	6.9	찾아가는 예술단	빛고을초등학교
	6.30	찾아가는 예술단	양산초등학교
	9.9	찾아가는 예술단	시립인광노인정신병원
	9.15	찾아가는 예술단	학강초등학교
	9.20	찾아가는 예술단	한희그린실버요양원
	10.11	찾아가는 예술단	광산구청 문화정보과
11.1	찾아가는 예술단	엠마우스산업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음악교육	학 번	20098081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 나 영 한문: 金 羅 英 영문: Kim Na-Yeong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한신아파트 101동 204호				
연락처	010 -3278 -6606 E-MAIL: blue-na213@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청소년을 위한 국악연주활동 연구“광주시립예술단을 대상으로” 영문 :A Stud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Activities for Adolescents: Focused on Gwangju Municipal Art Compan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2 년 1 월 2 일

저작자: 김 나 영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